

목포 대양산단 조성 원가 111억 절감

구조조정·임원 인건비 삭감 등 운영비 줄여 4월 5일 기공... 평당 분양가 5만원 낮아질 듯

대양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목포시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자구노력을 통해 조성원가 111억원을 절감했다. 인원 구조조정과 임원 인건비 삭감은 물론 공사비, 감리비 등 전반적인 운영비를 대폭 줄였다. 17일 목포시에 따르면 신단 조성을 맡은 특수목적법인 (주)대양산단은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 수를 12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대표이사 인건비를 대폭 삭감시켜 법인 운영비를 기존 39억원에서 9억원을 줄였다. 또 공사비를 805억원에서 768억원으로 37억원 줄이는 것은 물론 자체비 207억원에서 192억원으로, 감리비 19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각각 줄였다. 다만 사후

영양평가비로 3억원을 새로 반영하면서 조성비는 당초 1084억원에서 1031억원으로 모두 53억원이 낮아졌다.

당초 510억원이었던 금융비용도 478억원으로 줄이고 신탁보수는 6억원이 늘면서 결과적으로 26억원을 절감시키는 성과도 거뒀다.

이와 함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자치단체로부터 기반시설비의 50%인 145억원 지원받는 것은 물론 전남도 지원금 10억원도 확보했다.

특히 시공사와 지난 2011년 말 기 초금액의 74.18%인 1012억원로 공사 가도급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해 말 끈질긴 협상 끝에 53억원을 줄인 959억원에 최종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대양산단 평당 분양가는 당초 대비 5만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양산단의 조성원가 절감에는 목포시와 특수목적법인은 물론 목포시의회 노경문 관공경제위원장 등 시의회도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 성과를

냈다는 후문이다. 한편 다음달 5일 기공식이 예정된 대양산단은 목포시 대양동 축구센터 인근 156만㎡(47만평)에 조성되며, 총사업비로 2909억원이 투입돼 오는 2015년 준공 예정이다. 목포시는 대양산단이 조성되면 생산유발효과 255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354억원 등 4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기여를 공언 중단 기간에 율양 보강, 부가가치와 1만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진도군이 오는 21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에서 보배섬 진도 명품 농수특산물 판매행사를 개최한다.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수도권 소비자에게 진도 특산품을 홍보하고 검정쌀, 구기자, 울금, 홍주, 멸치, 김, 미역 등 청정 농수특산물을 산지 가격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진도=박형영기자 hyark@

목포 '춤추는 바다 분수' 22일 공연 시작

목포의 명물인 '춤추는 바다 분수'가 오는 22일부터 공연을 시작한다. 17일 목포시에 따르면 화~목·일요일은 매일 밤 2회(8시·8시40분), 금·토요일은 밤 3회(8시, 8시40분, 9시20분) 공연한다. 올 바다 분수 공연은 겨울철 공연 중단 기간에 율양 보강, 레이저 프로젝터 추가 설치 등으로 더욱 현감 있고 화려해진다. 바다 분수 인터넷 홈페이지(http://seafoountain.mokpo.go.kr)로 기념일, 프리포즈, 생일 등의 축하 사연을 받아 신청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사연을 소개한다. 세계 최초·최대인 바다 분수는 분수 노즐 276개, 최대 분사 높이 70m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u@

흑산도 해역 해양 생태계 상세 기록

수산과학원 '자산어보' 발간 ▲제1장 흑산도의 지리적 특성, 역사와 유배 문화, 수산업, 자산어보의 발간 의미 ▲제2장 흑산도의 수산생물상 ▲제3장 총론 ▲제4장 향후 연구 방향 등으로 구성됐다. 이 책은 정약전이 남긴 자산어보를 새롭게 조명해 자산어보에 기록한 수산생물을 현대의 과학적 방법으로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산과학원은 이 책을 학계와 관련 기관에 배포할 방침이다. /신안=이상민기자 sllse@

수산과학원 '자산어보' 발간 ▲제1장 흑산도의 지리적 특성, 역사와 유배 문화, 수산업, 자산어보의 발간 의미 ▲제2장 흑산도의 수산생물상 ▲제3장 총론 ▲제4장 향후 연구 방향 등으로 구성됐다. 이 책은 정약전이 남긴 자산어보를 새롭게 조명해 자산어보에 기록한 수산생물을 현대의 과학적 방법으로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산과학원은 이 책을 학계와 관련 기관에 배포할 방침이다. /신안=이상민기자 sllse@

신안 흑산도 해역의 수산 생물, 해양 생태계를 상세하게 기록한 책이 나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정약전의 자산어보 발간 200주년을 기념해 흑산도 주변 해역의 여름과 가을철에 출현하는 수산생물을 현대의 과학적 방법으로 재해석한 '자산어보와 21세기'를 발간했다. 이 책은 정약전 선상이 기록한 조선후기 흑산도의 해양생태계와 수산과학원이 조사한 흑산도 서식 수산생물의 특징을 사진과 곁들여 상세하게 설명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단신

도교육청, 345개교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초·중학교 345개교에서 '토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도내 전체 초·중학교(628개교)중 55%다. 참여하는 학생 수는 초등 1만1045명, 중등 4126명 등 총 1만 171명이다. 초등학교 242개교에서 289개 프로그램을, 중학교 103개교에서 133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주=김철수기자 knews@

군산항 환경조성 방안 간담회

군산시는 지난 15일 시청 면담실에서 군산항 주요 부두운영사와 함께 지속성장 가능한 군산항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해 군산항 부두운영사인 CJ대한통운(주), 세방(주), ㈜선광, 한솔CSN(주), GCT(주) 및 군장시항만(주)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항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대책과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부두운영사 간 물동량 유치 경쟁으로 인한 적자 운영 타개책 등을 논의했다. /군산=박금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CSN(주), GCT(주) 및 군장시항만(주) 대

정읍 단풍미인쇼핑몰 고객 신뢰 1위

정읍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단풍미인 쇼핑몰(www.danpoongmall.com)이 고객이 신뢰하는 상표에 뽑혔다. 단풍미인쇼핑몰은 최근 환경비즈니스가 주최한 '2013 고객이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에서 농특산물 쇼핑몰 부문에서 1등 브랜드로 선정됐다. 단풍미인쇼핑몰은 우수 농특산물 만 730개 품목을 엄선, 시중보다 싼 값에 팔고 불만족 시 교환 또는 환불해줘 소비자 신뢰를 쌓았다. 주문 다음날 상품이 도착하는 배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구매금의 2%를 적립해준다. 단풍미인쇼핑몰은 지난해 1월 개점해 지난달까지 5억6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원-지리산 학생수련장 업무협약

남원시가 국악 체험프로그램의 활성화와 함께 지리산 학생수련장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악을 테마로 한 특화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관광지(국악의 성지, 춘향테마파크) 견학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감사지원 ▲ 관광기 해설사 우선지원 등을 지원한다. 4월부터 진행되는 특화 프로그램에는 전남도내 80여개 학교 학생 8000여 명이 춘향테마파크에서 마당극 춘향전, 판소리 따라 배우기, 장구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상설 체험을 하게 된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무안군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준공식이 지난 15일 해제면 유월리에서 김철주 무안군수, 이윤석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법인에는 상온통풍건조시설, 색채선별기 등 각종 시설이 갖춰져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 고품질 '황토랑쌀' 본격 생산

65억 들여 농협쌀조합공동법인 준공

무안군은 17일 "지난 15일 해제면 유월리에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무안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무안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난 2009년 법인을 설립하고, 2010년부터 해제면 유월리 일원에 고품질

쌀 브랜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모두 6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만7166㎡부지에 상온통풍건조시설, 색채선별기, 임질분리기 등 5323㎡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김철주 군수는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쌀을 공급할 수 있는 첨단시설의 준공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이를 통해 '고품질 무안쌀'의 우수성이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준공식에는 김철주 군수를 비롯한 이윤석 국회의원, 군의회 의원, 도의원, 김수공 농협중앙회 경제대표이사 등 내외빈과 관내 쌀생산 관련 단체와 농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해 고품질 무안쌀 생산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im@

전북

전주 명소 한옥마을 화재 무방비

소방도로 좁고 소화시설 20% 불과

이미숙 시의원 지적

지난해 500만명이 찾은 전주 한옥마을이 화재에 취약,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에 따르면 1997년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된 한옥마을 일대에는 670여채의 한옥과 경기전 등 7개의 문화재, 최명희 문학관 등 18개의 문화시설이 몰려 있다. 그러나 한옥마을을 가로지르는 경기전길, 최명희길, 어진길 등은 예초도로 폭이 좁은데다 평일에도 불법 주차 차량 대형 화재로 진입이

쉽지 않다. 설사 소방차가 한옥마을에 진입하더라도 전주천 동로와 향교길 사이의 한옥 골목길은 폭이 1.5m 안팎에 불과해 화재 진압에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뼈곡히 들은선 목초 한옥들이 낡고 오래된데다 인접 주택의 처마와 처마가 거의 붙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옆집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이미숙 의원은 "한옥마을에는 이 처럼 좁은 골목길이 30개에 달해 자대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주=김철수기자 knews@

아울러 화재예방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완산 소방서에 따르면 한옥마을 445가구 중 경보형 화재감지기나 소화기 등 화재예방시설을 갖춘 곳은 20%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화재예방시설이 전무했고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도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화재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고 주민 자율안전협의체를 구성, 민간 협조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김철수기자 knews@



춘향테마파크 '전통문화 페스티벌' 연중 운영

소설 춘향전을 관광상품화한 전통문화 페스티벌이 춘향의 고향 남원 춘향테마파크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남원시는 17일 "춘향전의 주요 내용을 체험 프로그램으로 묶어낸 '춘향테마파크 전통문화 페스티벌'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통문화 페스티벌은 고전문화 춘향전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판소리 배경으로 마당극 '춘향전' 사물놀이공연, 판소리배우기, 장구로

배우는 민요체험, 공예체험, 춘향과 이도령 그네뛰기 체험 등의 다양한 예술 공연과 풍성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춘향테마파크 내에 있는 옥사정에서는 목갈, 목수갑을 써보고 곤장을 맞이하는 옥사정 퍼포먼스가 열리며, 조선시대 전통의복을 입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의복 입어보기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서남권 공설화장시설 건립 탄력

정읍시의회 건립안 승인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290-2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서남권 광역공설화장시설 공원화사업' 공역관리계획안이 지난 15일 정읍시의회 제1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읍시 최대 현안사업이자 숙원사업으로 고창·부안·군과 함께 광역으로 추진 중인 서남권 광역공설화장시설 건립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비롯하여 주차장, 조경, 정원 등을 갖춘 공설화장시설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행정절차 및 부지매입을 마무리 하고 하반기에 실시계획을 거쳐 착공, 2014년 내에 완공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추진에 있어 주변마을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변마을 주민과 충분히 원만한 소통을 갖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신청마을, 주변마을, 감곡면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고로쇠 무료 시음회

무주 구천동 관광연합회가 주관한 덕유산 고로쇠 축제가 지난 16일 무주군 국립공원 덕유산 삼공주차장에서 각 기관단체장, 탐방객,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고로쇠 채취 체험에 참가한 관광객이 수백 채취 농민에게 설명을 듣고 무료시음회에서 고로쇠 물을 들이키고 있다. /연해뉴스

무주 구천동 관광연합회가 주관한 덕유산 고로쇠 축제가 지난 16일 무주군 국립공원 덕유산 삼공주차장에서 각 기관단체장, 탐방객,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고로쇠 채취 체험에 참가한 관광객이 수백 채취 농민에게 설명을 듣고 무료시음회에서 고로쇠 물을 들이키고 있다. /연해뉴스